

후설의 『데카르트적 성찰』에 나타난 자기성과 타자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

장은주* · 박치원**

주제분류 현상학, 신경생리학, 자아 연구, 포스트현상학

주요어 자기(자아), 타자, 지각, 공통 영역, 후설, 데카르트적 성찰

요약문

후설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자기 구성 이후에 타자 구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후설의 주장과 달리 자기성과 타자성은 출발부터 동시에 구성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정형화에 반(反)하는 인간 의식의 특성은时时刻刻 변화하는 상황을 역동적으로 지각한다. 이는 곧 자기성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의미이다. 타자에 대한 지각 역시 이러한 자기 구성과 궤를 같이하며, 자기 구성에 있어 타자는 필수적 요소이다. 신경생리학적 실험들에 따르면, i) 타인의 나에 대한 지각이 새로운 자아를 발생시키고, ii) 타자를 직접 지각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지각 구조가 실제로 변화하며, iii)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타자의 현존성에 의해 자기성이 역으로 인식되며, iv) 자기와 타자에 관한 신체적 지각과 사유에 있어 ‘공통 영역’이 존재한다. 신경생리학적 실험들을 통해 밝혀진 공통 영역의 존재는 결국 현상학적인 자기성과 타자성은 ‘동시 구성’이라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바의 핵심 내용이다.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1. 문제제기: 타자는 자아 이후에 구성되는가?

‘자아’라는 개념은 출생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동반될 수 밖에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기초적 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 또는 ‘자기’나 ‘자기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로 즉답(即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되기 어렵다고 해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이는 늘 ‘타자’와 함께 존재한다. 타자와 함께 존재하는 자아에게 자이는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고, 그 때문에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후설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자기 자신 속에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자아(ego)”와 타자(Andere)를 구분한다. 다른 자아(anderes ego)로 후설이 규정하고 있는 타자는 일차적으로 ‘타인’을 지칭한다.¹⁾ 후설에게 타자 또는 타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나머지 전부이다.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COVID-19는 그동안 인류가 유지해온 삶의 방식과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WEC의 표현대로 “The Great Reset”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²⁾ 가장 큰 변화는 “Untact 사회”의 일반화라 할 수 있다. 다수의 개인이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상태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인공지능으로부터 추천된 음악을 듣는가 하면 음성파일 텍스트를 듣기도 한다.

1) 에드문트 후설, 오이겐 펄크, 『데카르트적 성찰』, 이종훈 옮김, 한길사, 2016, 34쪽. 이후 이 책은 『성찰』로 표기하며, 괄호 안에 쪽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인용을 대신함.

2) “The Great Reset” is a new initiative from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HRH the Prince of Wales to guide decision-makers on the path to a more resilient, sustainable world beyond coronavirus. From sickness and the death of loved ones to work shortages and school closures, the pandemic’s ramifications have touched every part of society - and thrown inequalities into sharp relief.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6/covid19-great-reset.../> (2020.06.03.)

핸드폰과 컴퓨터는 이제 단순한 사물이라기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의 일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타자 경험은 엄밀히 말해 자기와의 관계 속에 있는 타인이라 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비인칭 타자들’이다. ‘비인칭 타자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경험하는, 즉 나의 자아가 수행하는 실제적이거나 가능한 세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타자들’(404, 225)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단지 나에게 대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내 감각의 일부가 되어 내 삶에 있어 주요한 자기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타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지각체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³⁾ 이런 새로운 지각 경험은 그 자체로 나의 내부를 변화시키는가 하면 순간순간 나의 자기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타자가 나의 자아를 구성한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과정의 일환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자 핵심 내용이며, 본문의 구성은 먼저 후설의 『데카르트적 성찰』에 언급된 자아와 자기 개념 및 타자 개념을 비교·분석할 것이며, 이를 위해 ‘타자 = 자기가 아닌 세계의 나머지 전부’라는 조작적 정의를 활용할 것이다.⁴⁾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는 것은 COVID-19 상황에서, 즉 매체와 사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의 자기성과 타자성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이다(제2장). 다음은 실제 자아의 의식이 자기와 타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지각과정을 신경생리학적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후설의 자기성과 타자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암시할 것이다(제3장). 그리고 결

론에서는 ‘자기’가 확립되고 나서 자기를 기준으로 타자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자’가 동시적으로 상호구성된다는 점을 연구 결과로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성과 타자성의 구성적 양립가능성을 확보하는 길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이 속한 객관적 자연이나 객관적 세계 일반인 타자에 관한 새롭고도 무한한 영역을 구성적으로 가능하게”(193)하는 후설 현상학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 판단해서다.

2. 자기와 타자의 관계: 사유, 의식에서 신체의 지각으로

1) 자기와 자아의 차이: 지각 경험을 구성하는 자기와 지각의 현재화로 변경되는 자아

후설은 『성찰』에서 자기(selbst)와 자아(ego)를 분리해서 논하고 있다. 그의 현상학적 엄밀성은 논리학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자기와 자아 개념은 후설에게서도 후학들에게서도 타 개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밀하게 분리되어 연구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후설 현상학에서의 자기와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담긴 논문은 찾기 보기 어렵다. 유일하게 이남인이 2015년 「자기의식의 현상학」에서 “자기의식은 우선 자아에 대한 의식, 즉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뜻한다”고 정의하면서 철학에 있어 자기의식에 관한 타학문과의 연관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먼저 자아를 다양한 자기의식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⁵⁾ 그런데 그는 후설의 “나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경험(Hua XV, 278)”이라는 언급을 “감각적 자기의식”으로 단정하고 그럼에도 “신체가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의식을 “신체적 자기의식”으로 설명한다.⁶⁾ 하지만 감각으로 자기를 느끼

3) J. E. Chang & Y. Choi, “Perception of the contemporary child and theatre for the very young”, *Medien und Theater*, Neue Folge, Band 13, Georg Olms Verlag, 2015, 31-42쪽.

4) 본고에서 타자는 ‘자기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을 지칭하고, ‘사람’을 의미할 경우는 ‘타인’으로 명기할 것임.

5) 이남인, 「자기의식의 현상학」, 『철학논집』 제41집, 2015, 11-12쪽.

는 것은 신체를 통한 지각과정이다. 감각기관은 모두 신체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체 감각적으로 자기라고 의식하는 혹은 의식하게 되는 지각 작용은 의식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고 진행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지각(perception)은 인지(cognition), 인식(알아차림과 기억의 과정이 합체된 인지) 일반적인 앎(knowing), 감각하는 것(sensing) 모두를 지칭하면서 일반적으로 혼용되는 경향이 강한테 신경학적 지각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외부자극을 뇌에서 처리하는 경험의 일련 과정 전체를 말한다. 그 자체가 추론과 문제해결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인간의 신경학적 지각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신경학적 경로를 오가며 일어난다. 튼튼한 과정과 바툼업 과정 바로 그것이다. 바툼업이 자극의 합을 하나로 형태화한 것이라면, 튼튼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지각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때 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언어의 영향을 받는 측면에서 튼튼의 지각과정은 타 동물들과 상당히 다르며 아주 복잡하다.⁶⁾ 본고에서 언급되는 지각과정은 의식의 작용이 포함되지 않는 과정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태아에게서도 지각과정(바툼업)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자기의식의 출발점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남인은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처음 작동하기 시작하는 감각” 경험으로써 “태아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세속적인 선반성적 자기의식은 최초의 선반성적 자기의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형성된 것”으로 정의

6) *Ibid.*, 13쪽

7) Zimmermann, M. “Neurophysiology of Sensory Systems”, In R. F. Schmidt (Eds.) *Fundamentals of Sensory Physiology*, translated by M. A. Biederman-Thorson, Berlin: Springer-Verlag, 1978, 5-7쪽, 63-65쪽; ; Edelman, G. M. & Tononi, G., *A Universe of Consciousness*, New York: Basic Books, 2000, 67-70쪽, 234-245쪽; Goldstein, E.B. et al 『감각과 지각』 김정오 외 옮김, 제7판, 시그마프레스, 2007, 6쪽, 31쪽, 46쪽.

하고 있다.⁸⁾ 감각에 대한 지각의 신경생리학이 태아기 세포 차원까지 내려간다는 이남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반성적’이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신경세포 차원의 감각에 관한 지각 경험을 의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단정 역시 지각과정에서의 감각 경험과 의식의 범주를 구분하지 않은 결과다. 태아의 신경세포학적 감각 경험은 후설의 분류대로 ‘경험’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분명 의식은 아니다. 게다가 이남인의 기술대로 “이때부터 태아는 선반성적 자기의식을 반복적으로 작동시키면서 선반성적 자기의식의 습성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습성체계를 가지고 태어난 세속적인 주관은 그러한 습성체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초의 반성적 자기의식 작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태아기부터 의식이 정형화 과정을 거친다는 논리다.⁹⁾ 인간(태아 때부터 각 세포의 총합으로서)에게 있어 세포 내부와 외부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야기해 이러한 감각의 총합을 ‘일차 의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화된 패턴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각 입력과 행동 출력 간의 정형화를 방지해야 오히려 개체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에 유연성이 부과된다. 그리고 실제 정형화에 반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 인간의 뇌만이 가진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의식을 척추동물류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일차적 의식과 비교해 고차원 의식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⁰⁾ 진정한 자기의식은 그 출발점이 고유 감각(proprioception)이다. 의식이나 생각은 이것들이 발동되기 전 기초 감각이 작동한다. 신체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출발한 고유 감각은 “신체감각 피질과 연계하여 변연계와 시상하부에서 신체적 느낌을 만든다. 따라서 고유 감각은 존재감의

8) 이남인, *op. cit.*, 22쪽.

9) *Ibid.*

10) E. R. Kandel et al., *Principles of Neural Science*. 5th ed., The McGraw-Hill Companies: New York, 2013, 374쪽.

기본이다.”¹¹⁾ 즉 나의 존재를 의식하는 자기의식은 존재 감각을 기본으로 하는데, 존재 감각 없이는 내가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자아 개념만 가지고는 나의 범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신체는 감각기관을 통해 ‘나’는 나를 감각하는 범위, 즉 자기 감각을 가지게 된다. 자기의식은 바로 ‘자기 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 감각은 의식이 잡드는 꿈을 꾸는 와중에도 유지된다. 깨어있을 때와 동일하게 위치 운동 전정기관이 활성화되어 고유 감각, 즉 자기 존재감을 만들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자기는 신체의 범위를 가진 정신물리적 존재로서 자아의 지각 경험을 구성하는 기초개념인 것이다.¹³⁾

자기와 자아를 분리해서 논하는 후설은 『성찰』에서 ‘자기(selbst)’를 언급하는 것은 자아가 “자기를 경험하는(selbsterfahrung)’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선형적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데 자아는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때그때 본래 충진적으로 경험된 것이 핵심만 제공할 뿐이다. 즉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의 문법적 의미를 표현하는 생생한 자신의 현재(Selbstgegenwart)만 제공할 뿐이다.”(73)

결국 후설은 정신물리적 신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자신의 현재 지각 경험을 자아에 제공하는 것이 자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생한 지금 현재의 자기 경험을 통해 자아는 “그때그때 생각하고, 사고되고,

가치가 평가되고, 행위”(134)할 수 있다. 후설에게 자아는 ‘체험의 극’이다. 그런데 이 자아극은 체험, 즉 생생한 경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설의 자아는 사유하는 자아인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달리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게 된다. 후설이 ‘가능한 자아’, ‘사실적 자아’, 그리고 ‘선형적 자아’를 구분한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즉 우리는 사실적 자아 속에서가 아니라 자아로서의 형상 속에서 형상적으로 순수한 유형과 더불어 있게 된다. 또는 순수한 가능성들 가운데 실제로 순수한 어떤 가능성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그것의 외적 지평으로서 순수한 의미에서 가능한 자아를, 나의 사실적 자아의 순수한 가능성을 변경시키는 것을 함축적으로 수반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실적 자아를 자유롭게 변경시켜 생각할 수도 있고, 선형적 자아 일반의 명백한 구성이라는 본질적 탐구 과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143)

후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적으로 세계로 들어가 관심을 두는 자아”(91)인 사실적 자아는 “모든 근원적인 체험의 장안”(134)에 있으면서도, 현상학적인 태도를 취하여 “함께 수행하지 않는 것(Nicht-mitmachen)과 억제하는 것(Sich-enthalten)”(91)을 구분하기 위해 “순수한 사유작용(cogitationes)”(45)을 언급한다. 그런데 자아는 순수한 사유작용을 통해 “여전히 의식되는’ 변화와 자아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양상 등을 탐구한다.”(110) 여러 가지로 변경이 ‘가능한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자아의 관점에 주목하는 사유 양상은 생생하게 나타나는 세계의 ‘지금들’을 다시 내 안으로 끌어들이며 결국 내가 이전에 구성해 둔 것들로 변경시킨다. 그리하여 가능한 자아는 “그때그때 의미를 통해 나에게 타당한 것으로 변화하고 변화 속에 서로 결합된 나의 **사유작용이 사유한 것으로서**, 나에게 대해서만 존재”(원문 강조, 94-95)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후설의 자아들에 대한 논의에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

11) 박문호, 『뇌 생각의 출현』, 휴머니스트, 2008, 211쪽, 223-224쪽, 240-242쪽 참조.
12) H. S. Porte, “Homing in on Consciousness: Why is a dream Consciou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39, 2016 참조.
13) 일부의 심리학 연구를 제외하고 자아 개념은 최근 자기(Selbst, the Self), 자기성(Selfhood, Selfness), 인식자로서 자기와 대상으로서 자기(self-as-a-knower/self-as-an-object)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신경생리학적 자기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본문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는다. 후설이 선형적 자아(Transcendental Ego)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선형적 자기(Transcendental Selbst)라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 있어서 자아는 자기를 이루는 자기성의 사유적 존재로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가 “기억이나 상상과 같이, 시간·공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지 않는 것을 의식에 현존하도록 만드는 작용”(110, 각주 25)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후설은 자아의 사유적 역량을 극대화했다.¹⁴⁾ “나의 정신적 고유영역에서 나의 다양한 순수체협의 동일한 자아 극이며, 나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지향성과 이것에서 건설된 그리고 건설될 수 있는 모든 습득성의 동일한 자아 극”(181)은 “수동적으로 미리 구성된 것을 능동적으로 통각”한 경험을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한다.¹⁵⁾

그런데 자아가 이렇게 변경되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속적으로 구성하며 관통하는, 동일한 기체(基體)로서 ‘머무르면서 남아있는(stehend und bleibend)’ 동일성의 동일은 바로 지각하는 자기, 자신의 몸 안에 머무르는 자아이다. 따라서 후설은 사유하는 자아와 더불어 정신물리적 신체적 자아가 인격적 특성을 확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137)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하는 자아의 확장 and 변경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자아의 특성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오로지 나 자신의 것이 되어 내 속에서만 구성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사유하는 자아만의 세계에서는 타자 역시 자아 주도로 구성될 뿐이다. 후설의 자아는 “이처럼 독특한 방식으로 타자의 의미를 추상해 배제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환원된 자

아”(181)만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유하는 자아와 신체적 자아 앞에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타자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자아의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서 과연 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2) 후설의 자아와 타자의 규정 방식과 그 비판적 해석

후설에게 타자는 곧 “다른 자아”(170)이다. 이 다른 자아는 “그 자체로 최초의 타자(‘자아가 아닌 것’)(193)이다. 애초에 후설의 자아에 타자가 필요했던 것은 타자에 그 동기가 있지 않았다. 자아가 객관적 세계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타자 인식이 요청되었을 뿐이다. 자아는 자신의 원본적이고 원초적인 영역을 먼저 정의하고 분절하는 ‘선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비단계’를 처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객관적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향한다. 즉 타인으로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195). 타자는 나에게 의해 추후에 구성되어 나의 자아‘로’ 들어와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타자가 자아‘로’ 들어와서 ‘간접적 제시’되는 이유를 후설은 ‘같이 있는 것’이 타자의 현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함께 현존함(Mit da)’은 그 자체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그 자체로 현존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종의 ‘함께 현존하게 하는 것(Mitgegenwärtigmachen)’, 즉 일종의 간접적 제시이다.” (196)

그러므로 나는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간접적 제시된 것으로, 다시 말해 ‘원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타인을 경험(250)하게 된다. 이 중후은 간접적 제시를 생성한 지금의 ‘현재화’인 ‘직접적 제시’와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4) 최근의 신경생리학 연구들도 ‘지금, 여기에’의 지각과정이 의식의 현전화(Vergegenwärtigung) 기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후설이 현존하지 않는 것을 현존하게 하는 것을 사유적 자아가 하는 일로 규정할 반면, 신경생리학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자아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점에서 후설의 주장과 다르다.

15) 조셉 J. 코겔만스, 『후설의 현상학』, 임현규 옮김, 창계, 2000, 48쪽.

“간접적 제시”는 직접적 제시와 함께 ‘통각’과 ‘연상’을 통해 예측적으로 주어질 것으로서, 이미 기억 속으로 흘러가 현존하지 않는 것을 시간의 지향적 지평구조로 다시 함께 현존하게 만드는 ‘현전화’이다. 후설은 타자 경험의 간접적 지향성, 즉 ‘감정이입’을 ‘간접적 제시’(유비적 통각)라고 부른다. 즉 타인의 신체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만 그의 심리적인 것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들을 짝짓기(Paarung)로 통일함으로써 타자가 구성된다.” (196, 각주 11)

후설에게 “항상 원본으로 직접 제시할 수 있으며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거나 나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나 자신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 타자는 “원초적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경험”이며 “나 자신의 고유한 것의 유사물로서만”(203) 자아가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다. 후설이 정의하고 있는 타자는 결국 다음과 같이 나에게 구성될 뿐이다: i) 타자는 나와 달리 원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다. ii) 그러나 지시된 것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경험의 방식으로 타자는 나에게 경험된다. iii) 따라서 필연적으로 타자는 자아가 구성한 “다른 자아의 ‘의미’”에 불과하다.

‘의미’에 불과한 타자는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규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후설이 제시한 타자의 현전화(Vergegenwärtigung)¹⁶⁾만 가능하고 현재화(Gegenwärtigung)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앞의 인용문에서 보았듯, 후설은 분명 타자의 신체는 직접 제시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직접 제시된 타자를 지각한다. 타자의 존재는 ‘의미’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란 뜻이다. 우리가 세계와 관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용들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지각이다. 타자가 내 앞에 있다고 판단하기 전 우리의 지각은 타자의 존재에 대해 지각한 바

16) ‘현전화’에 대한 후설의 직접적 설명은 다음 참조: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만드는 잠재적 지각들을 현전화(Vergegenwärtigung) 함으로써 사유된 대상의 의미 속에 포함된 것”(110)

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준다.¹⁷⁾ 그러나 후설은 “타자에 대한 지각에서 간접적 제시 역시 직접적 제시와 함께 그 기능의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하고 타자에 대한 지각은 ‘본래의 **지각과 결합된 현전화**’를 함께 지각하는 ‘**지각의 기능**’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제한하였다(213, 필자 강조). 그러면서도 후설은 지각의 기능 공동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지각의 기능 공동체가 세계의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하는 자아의 지각의 일부에 그 기능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인지 혹은 타자와 자아가 서로 지각할 때 일어나는 발생적 현상으로서 기능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다.¹⁸⁾ 다만 후설도 “아무튼 다른 자아 속에 아주 분리되어 구성된 물체, 동일화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라고 부르는 그 물체를 동일화하는 것”(212)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구체적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하다. 사유하는 자아가 지각한 타자의

17) 조셉 J. 코겔만스, *op. cit.*, 43쪽

18) 타자(타인)의 경험에 대해 발생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본고에서의 후설 비판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대개 후설의 ‘상호주관성’ 개념과 ‘세계의 구조 분석’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아는 가장 근원적인 개념이요, 타자 및 사회는 파생적 개념”일 뿐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의 명증성”은 “모든 여타의 명증성을 떠받치고 있는 제일의 명증성”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의 문제』, 『철학사상』 제16호, 2003, 64쪽) 결과적으로 발생적 현상학이나 정적 현상학이나 공히 ‘초월적 자아’가 현상학의 토대라는 것을 역증명하는 형국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후설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이 타자에 대한 자아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관성의 발생적 현상학은 [전통의] 인식론 및 데카르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적 인식론, 사회철학, 문화철학, 역사철학, (...) 자연철학, 형이상학, 철학적 신학으로까지 발전해 나간다”(같은 논문, 67쪽)는 ‘만병통치약적 해석’이 과연 후설 비판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심이 든다. 지면 관계상 이 문제를 자세히 논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리고 본고는 기본적으로 『생활』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며, 자아/타자, 자기성/타자성의 동시적 구성에 후설 비판의 초점이 있으므로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둘까 한다.

신체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거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지각을 인식하는 주관이 인식되는 객체(대상)와 본질상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의식의 지향성이 정의되는 것을 감안(勘案)한다면 인식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자아에 제시되는 대상으로서 타자 지각, 그리고 그 지각의 기능 공동체는 반드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지각의 기능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아와 사유되는 타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의 타자의 자아가 또 다른 타자를 지각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코겔만스가 정확히 지적하듯, 후설의 자아는 “타자가 나의 지각영역에 들어올 때”만 통각 가능하고, 나는 “항상 나의 근원적 지각의 영역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²⁰⁾ 그러므로 이렇게 **타자의 원본적인 정신물리적 자아**를 지각하지 못하는 자아가 수행하는 타자 경험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자아 경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타인의 자아는 결국 **나의 자아가 인식할 수 없는 대상**(249, 필자 강조)이 되고 만다. 따라서 타자는 “**나에 대해 거기에 있음**’(Fur-mich-da)과 같은 특수한 문제로, 이른바 감정어입이라는 **타자 경험에 관한 선험적 이론**의 주제로”(원문 강조, 173)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나에 대해 거기에 있음’ 타자가 타자의 자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아가 수행한 감정어입이 타자의 자아가 가진 의미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해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설이 밝힌

19) 이종주에 의하면 메를로-퐁티는 50년대 이후 새롭게 출간되고 있는 후설의 유고를 바탕으로 후설의 타자이론을 재구성하는데 여기서 그는 자기성의 필증성이 자명하고 명확할수록 타자가 모호해지는 모순을 지적한다. 자아의 신체가 가진 불투명성은 타자지각의 근원이 된다. 한편, 이종주는 메를로-퐁티가 타자이론의 근거로서의 피아제 이론을 제시하는 데 의견을 달리한다. 피아제 이론의 맹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며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 이종주, 『후설의 타자이론의 근본화로서 메를로-퐁티의 타자이론』, 『인문논총』 제65집, 2011, 85-132쪽 참조.

20) 조셉 J. 코겔만스, *op. cit.*, 411쪽

바대로 이러한 해명의 경험과 작업수행이 “나의 현상학적 영역의 선험적 사실들”(171)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설은 타자 경험의 타당성의 토대는 “초월론적 환원을 통해 초월론적 자아인 나 자신을 반성함”(185)으로써 나의 고유한 원초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련된다고 주장한다.²¹⁾ 타자의 타당성이 나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련되는 이유는, 이종주의 설명대로, 구성의 순서 때문이다.

“요컨대 후설의 구성의 순서는 자기 구성으로부터 타자 구성에 이르고 이와 같은 타자 구성을 토대로 객관적 세계 구성이 이루어진다. 비록 초월론적 자아가 자기 구성의 출발단계에서부터 원초적인 자신의 고유한 세계와의 지향적 관계 속에서 타자 구성과 객관적 세계 구성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탈 세계적 주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초적 세계에 국한해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유아론적 세계이며, 더욱이 초월론적 자아가 그 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한다.”²²⁾

후설에 의하면 자기 구성 작업이 먼저 일어나고 타자와 세계 구성 작업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데, 그 작동 방식은 분명 일방향적이다. 즉, 자기가 타자의 구성에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타자가 자기 구성에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 사유의 순서나 이론의 순서로 보면 그렇게 일방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서론에서 예로 든 핸드폰의 경우를 떠올려보자. 그때 우리의 자기 구성이 먼저 일어나는가, 아니면 타자와 세계의 구성이 먼저 일어나는가? 또 진정으로 우리의 자아는 타자에 의해 구성되는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말

21) 반성은 오히려 타자를 배제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H. Gadamer, “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subject and person”,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Vol. 33, 2000, 275-287쪽, 280쪽 참조.

22) 이종주, 『후설현상학에서 유아론의 다의성에 따른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의 다의성과 남은 문제들』, 『철학』 제107집, 2011, 149쪽.

할 수 있는가?

시각을 달리해서 타자 경험에 관한 선험적 이론으로 타자의 의미를 분석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렇게 구성된 타자가 과연 ‘타자 그 자체’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 ‘거기’ 있는 타자 외에 스스로에게 자아가 되기도 하는 타자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구성한 타인경험만 가진 자아들만 각기 따로 세상에 남겨지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후설도 분명히 “타자는 독특한 방식으로 신체에 결부된, 즉 **정신물리적** 객체로서 세계 속에 존재한다”(원문 강조, 172)고 밝힌 바 있다. 후설 스스로가 명시하듯, 타자는 ‘나’의 자아가 그렇듯 정신물리적 존재이다.

“인격적 자아는 이러한 신체 속에 그리고 이 신체를 써서 외부세계에 작용하고, 이 외부세계의 작용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물체적 신체를 통해 자아와 삶이 것처럼 유일한 방식으로 관련된 것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써 정신물리적으로 일치해 구성된 자아이다.”(원문 강조, 180)

이 인용문에 따르면, 나와 타자는 신체가 직접 제시되는 정신물리적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직접 제시됨이 곧 나와 타자가 현재화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타자가 ‘거기’에 있다면, 그리하여 나에게 간접 제시된다면, 이는 타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타자가 나와 함께 있는 공간을 오히려 ‘거기’라고 구분해서 사유하고 있는 자아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2장 1절에서 이미 언급했듯, 신체의 범위를 가진 자아가 자아의 지각을 구성하는 기초개념이 되는 것처럼 타자의 신체는 나의 자아에 의해 사유되기 전 나의 신체적 자기에 의해 지각된다. 즉 나와 타자의 신체는 서로의 자기에 의해 동시에

23) 이 문장에 대해서는 위의 이중주의 글에 자세히 논의되고 있음.

지각된다. 이는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순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는 순간 동시에 일어난다. 메를로-퐁티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는 시간이나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안에 거주하고 있다.”²⁴⁾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선택하고 세계가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향성의 매개체인 “신체를 통해서”이다.²⁵⁾

“몸은 나를 꿰뚫고 단번에 타자에게 보여진, 보는 사람으로서 나를 구성하는 존재의 요소이다.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자아와 타자로 분리되기 이전의 ‘의명적 가시성’, 즉 특수한 존재자로 분리되기 이전의 보편적 존재의 차원이라고 부른다.”²⁶⁾

‘자기’는 정신의 구성물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위치를 점하는 신체적 속성도 가진다. 특히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각의 원천으로서 신체는 자기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메를로-퐁티 외에도 이런 신체적 자기성의 특성을 ‘현상적 자기(Phenomenal self)’개념과 연관시키고 있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²⁷⁾ 물리신체적 존재로서 인간은 세계 안에서 타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170) 그런데 후설은 주지의 ‘신체의 공간성’ 개념을 통해 나와 타인을 분리한다.

“나의 정신물리적 현존과 타인의 정신물리적 현존의 실제적 분리가 상응한다. 이 실제적 분리는 객관적 신체의 공간성 때문에 공간적 분리로 나타난다.”(222)

24) M.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D.A. Landes translated, Routledge, 2012, 140쪽.

25) 리차드 커니, 『현대 유럽철학의 흐름』, 임현규 외 역, 한울, 2017, 103쪽.

26) *Ibid.*, 122쪽.

27) C. Kidd, “Phenomenal consciousness with infallible self-representation”, *Philosophical Studies*, Vol. 152 No. 3, 2011, 361-383쪽; A. Tiriac et al., “Self-Generated Movements with “Unexpected” Sensory Consequences”, *Current Biology*, Vol. 24, No. 18, 2014, 2136-2141쪽 참조

물론 후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간은 나의 신체에 관한 공간일 뿐 나 혹은 타자가 함께 존재하는 공통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체의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나에게 대해 ‘거기’에 있는 타자를 볼 수 있는 내가 있는 곳은 분명 타자와 함께 있는 공간이다. 타자가 나와 함께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는 나에게 대해 ‘거기’에 있는 타자를 소유하는 자아가 그 공간을 분리해서 사유할 때에 국한된다. 사유하는 자아의 자기 구성과 타자 구성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면 자아에서 발생하는 타자의 정신현상들에 대해서도 현상학적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⁸⁾ 이를 해결하기 위해 C. 피코크는 자기와 타자의 개념을 서로 포개어지고 연동되어 구동되는 것(*interlocking account*)으로 재정립할 것을 주장한다.²⁹⁾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개념은 타자 개념과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하다는 데 기초한 것이다.

2-1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개념은 자기 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신체를 가진 자기가 처음 자기 자신이라는 스스로의 범위를 지각하는 순간 타자는 분명 자기와 함께 존재한다. 타자가 없는 자기와 타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의식이 잠드는 꿈을 꾸는 와중에도 자기 감각이 유지되는 이유는 위치 운동 전정기관이 어디엔가 누워있는 자기와 환경으로서의 타자(방바닥/침대)를 동시에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물리적으로 지각된 공간, 신체를 가진 자기이고 타자는 내가 사유하기에 앞서 나의 신체적 자기에 의해서 지각된다. 잠든 와중에 환경으로서의 타자를 먼저 지각하고(문이 쾅 닫히는 소리) 자아를 지각하는 (꿈에서 깨어나 내 의식을 찾음) 경우도 마찬가지다. 객관적 세계에서도 나와 타자

는 나의 사유작용이 사유한 것이 아니며, 나에게 대해서만 존재하고 그러한 것으로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 세계는 내가 타인으로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어 나에게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자아로 구성되지 않는다. 객관적 세계는 나와 다른 타자가 나와 함께 동시에 지각되는 현재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각의 기능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의식의 관여 없이도 자기 지각은 타자 지각과 함께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객관적 세계를 구성한다. 요컨대 객관적 세계 구성은 자기 구성과 타자 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자기와 타자의 개념이 어떻게 서로 포개어져 지각되고 개념화되는지를 살피는 실험들과 자기와 타자에 관한 신체화, 정신화의 뇌 기능에서 공통 영역의 존재를 증명해줄 실험들을 살펴 보면서 자기와 타자의 동시 구성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3. 자기와 타자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접근: 비정형적/동시적 구성

자기 지각과 타자 지각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신경심리학적 실험이 있다. 일명 ‘쇼윈도우 실험’이 그것이다. 설명에 앞서 이 실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뇌영역을 먼저 짚어보자. 자기 지각과 관련된 뇌 영역은 ‘내측 전두엽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이다. 이 구역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감정적 의미를 스스로가 반응하는 순간 활성화되는 영역이다.³⁰⁾ 쇼윈도우 실험은 타자의 시각에 대해 자기 의미의 영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쇼윈도우에서 구경당하기 실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여러 연령대의 피험자가 쇼윈도우 안에 앉아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28) C. Skirke, “Existential phenomenology and the conceptual problem of other minds”,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52, Iss. 2, 2014, 227-249쪽 참조.

29) C. Peacocke, *Truly Underst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68-170쪽 참조.

30) 데이비드 이글먼, 『더 브레인』, 전대호 옮김, 해나무, 2019, 24쪽.

이 그들을 구경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연령대의 피험자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감정이 진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십 대의 피험자들 몇몇은 몸을 떨 정도로 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는 십대의 피험자들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³¹⁾ 십 대의 경우는 이 실험이 자기와 타자가 만나는 실험이라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를 구경하는 타자를 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피험자들이 경험한 이 새로운 자아는 의식적으로 스스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시각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자아가 반응한 것이다. 즉 스스로의 의식 내에서만 구성되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의식이 시각 입력의 정형화를 방지하여 새롭게 입력되는 시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출현한 자아이다. 프로이드가 자아들을 세 측면으로 나누고 후설이 여러 자아들로 변경되는 가능성에 주목했듯, ‘자아들’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자신을 드러냄)된다.³²⁾

자기에 관련된 의미를 주관하는 내측 전두엽 피질의 활동은 청소년기인 15세 무렵에 정점에 이른다. 반면 실행을 결정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활동의 영역인 안와전두엽(orbitofrontal cortex)은 이 시기에 아직 미성숙 상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자아를 과민하게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 위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아 개념은 상황에 따른 반응 [즉 현재화] 을 포함한다.

31) D. A. Vaughn et al., “Empathic Neural Responses Predict Group Allegiance”,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Vol. 12, 2018 참조.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S. Freud,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translated by James Strachey,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 original copy in German by The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Library, No. 6, 1922. 10쪽, 18-19쪽, 62-70쪽.

이처럼 타자 환경은 자기에게도 새로운 상황을 만든다. 상황에 따른 자기 경험은 타자에 의해 새로워지고 타자를 지각하는 경험은 자신의 실제 지각구조도 바꿀 수 있다.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실험에 앞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신생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얼굴(특히 눈)을 잘 찾고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 후측두피질(the inferior temporal cortex)에 위치한 안면인식 모듈(fusiform face area)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얼굴 모양을 찾아낼 때, 예를 들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두 눈처럼 보일 때, 사용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엄마의 얼굴도 신생아에게는 일종의 환경, 즉 지각 공간이다. 타자 지각은 자기와 주변의 공간과 그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사람/것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살펴볼 실험은 1963년에 행해졌다. 이는 실험윤리가 적용되기 전의 실험으로 지금은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서는 안 될 실험이다. 그러나 당시 많은 경우가 그러했듯, 이 실험 역시 꽤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실험이다.³³⁾

수직줄무늬가 쳐져 있는 원통 안에서 새끼고양이 두 마리가 일정 기간을 지낸 다음 일상의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때 연구자들은 원통 내부에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고양이들의 시각 입력 정보를 수집했다. 그런데 첫째 고양이는 스스로 걸어다니며 움직였고 나머지 고양이는 움직이는 기계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두 고양이가 본 환경은 정확히 같았다. 그런데 오로지 공간을 돌아다니는 새끼고양이만 그 이후 시각이 정상적으로 발달했고, 기계 위에 올라타고 있던 새끼고양이의 시각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즉 자기의 몸을 직접 움직여서 타자를 경험한 경우에만 시각이 정상적으로 발달한 것이다.³⁴⁾ 이 실험은 시각이 입력되고 인지

33) 본고의 내용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과학에 철학과 윤리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34) L. K. Rehnberg et al.,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environmental

되는 과정, 즉 지각 구조가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다.

이렇듯 타자(환경) 경험은 자기의 지각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물리적 신체의 움직임 없이 눈에 입력되는 정보와 빛의 관계만으로는 시각이 발달하지 않는다. ‘본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보는 ‘행동’으로서 자신의 신체와 그 신체가 접하는 공간과의 관계, 다시 말해 자기의 직접적인 타자 경험 없이는 획득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리고 환경으로서의 타자성은 자기의 신체적 공간 지각 없이는 확보되지 못한다.

공간 지각과 움직임과 자기성과 타자성에 대한 더 극명한 비교를 보여주는 실험은 “그네 타는 엄마와 아기원숭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해리 할로우 박사가 동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 실험은 위의 새끼고양이 실험과 함께 비윤리적 실험으로 비난받은 바 있으며,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는 실험윤리강령에 따라 절대 불가능한 실험이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동일한 환경에서 한 원숭이를 고정된 엄마 인형과 함께 지내게 하고 다른 한 원숭이는 스프링 추가 달려있어 아래위로 움직이며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이렇게 달린 스프링의 움직임은 전혀 예측불가능하며 패턴화되지 않았음) 엄마 인형과 함께 자랐다. 나머지 환경은 두 원숭이 모두 동일했다. 고정된 엄마 인형과 지낸 원숭이는 아기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성인이 되어서 동료들과 함께 할 때도 자기 존재 인식을 하지 못했다. 또 한 곳에서 몸을 계속 흔들며 대는 상동 행동 등을 보였고, 동료들의 존재를 사물처럼 인식했다(예를 들어, 바닥과 바닥에 엮드린 동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밟고 다녔는데, 밟힌 동료가 공격을 해도 그 원인을 알아차려 행동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네 타는 엄마 인형과 지낸 원숭이는 성인이 되어 동료들과 처음 만날 때부터도 공간 지각은 물론이고 동료들을 인식하고 관계맺기를 하는

데에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³⁵⁾

할로우 박사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이 실험을 고안했으나 결과가 보여준 의미는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두 아기원숭이 모두 친모가 아닌 천을 씌운 가짜 인형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움직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관계맺는 능력의 발달(성인기 이후의 사회성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점이다. 자기성과 타자성의 개념으로 이를 응용해 보면, 타자가 주도한(전혀 예측불가능하며 패턴화하기 힘든) 타자성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자기성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설의 지각의 “기능 공동체”(213)와 연결시켜 설명해보자면, 지각 가능한 공간의 범위 내에 함께 있는 타자와 자기의 신체가 바로 지각의 기능 공동체라는 것이다. 부연컨대, 자기성의 지각은 나의 신체의 명중성만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타자의 예측불가능하며 패턴화되지 않는 현존성, 즉 현상의 이전과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 필증적으로 증명되거나 사유될 수 없는 타자의 신체가 매번 다르게 내 앞에서 드러내는 현존성에 의해 나의 자기성이 역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안았다 놀렀다 들었다 났다하며 흔들고 움직이는 와중에 자기의 몸과 공간 그리고 타자의 몸이 존재하는 타자의 공간을 지각하며 자기성과 타자성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획득한다. 성인들에게도 타자의 생각과 경험을 추론하는 것은 의식적 노력을 요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타자의 신체를 지각하는 작업은 갓 태어난 신생아도 할 수 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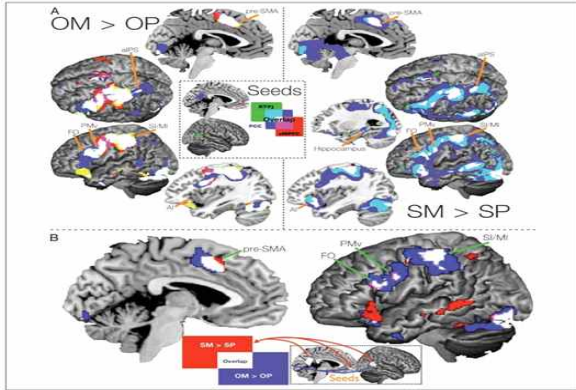
35) C. E. Mears & H. F. Harlow, “Play: Early and Eterna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72, No. 5, 1975, 1878-1882쪽 참조.

36) 신생아의 타인 모방능력에 대한 해석은 크게 다음 3가지이다: 기초적 사회인지 능력, 기초반사, 신경흥분작용. 이렇게 3가지 이론이 있지만 기초적 사회인지능력에 대한 찬반 의견은 2020년 현재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타자를 지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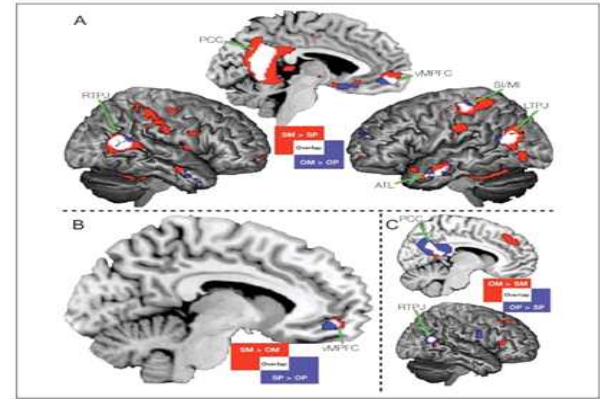
enrichment on the space use, behaviour and stress of owned housecats facing a novel environment”,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2015, Vol. 169, 51-61쪽 참조.

2-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신생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태아 상태에서도 자기 구성 세포들은 자기와 환경을 구분하여 지각한다. 이때 자기 경

그런데 후설의 경우처럼 자아가 먼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나서 타자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보자. 그러려면 타자보다 최소한 먼저 만들어진 혹은 구성된 자기 경험을 가진 자아가 있어야만 한



〈그림1〉: 그림 상단 중앙 아랫부분의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이 타자와 자기의 신체추론적 정신화 과정과 가치추론적 정신화 과정의 공통 영역일



〈그림2〉: A는 자기와 타자의 가치추론 정신화반응(SM, OM)이 신체적 추론 정신화 반응(SP, OP)보다 더 큰 영역; B는 자기의 가치추론과 신체적 추론 반응(SM, SP)이 타자의 OM, OP보다 더 큰 영역; C는 타자의 가치추론과 신체적 추론 반응(OM, OP)이 자기의 SM, SP보다 더 큰 영역을 보여줌

험의 ‘자기성’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태아 본인만의 개체형 인자를 표현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같은 유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예: 형제자매, 쌍둥이들) 이유이다.³⁷⁾

다. 그런데 자기 경험이 많아지면 과연 타자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생길까? 그리고 자기 경험에 대한 타자 경험의 간접적 지향성은 과연 위에서 살펴본 신경생리학적 실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의 문제제기를 해결해주는 자아, 타자, 신체화, 추론적 사고 모두에 관해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을 소개해 볼까 한다. 이 실험은 ‘사용하는 자아’의 작업수행 상태를 들여다보았더니 우리의 뇌 안

Oostenbroek et al., “Why the confusion around neonatal imitation? A review”,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Vol. 31, No. 4, 2013, 328-341 쪽; E. Nagy et al., “Positive evidence for neonatal imitation: A general response, adaptive engagement”, *Developmental Science*, Vol. 23, No. 2, 2020, 1-16쪽 참조.

37) P. Rochat, “The self as phenotyp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20, 2011, 109-119쪽 참조.

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구성의 공간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아래의 <그림1>과 <그림2>는 자기에 관한 질문(빨간색)과 타자에 관한 질문(파란색)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뇌 fMRI들이다.³⁸⁾ <그림1>의 B 부분을 보면 빨강과 파랑의 중간 영역인 흰 부분이 있는데, 이 흰 부분이 자기와 타자 구성에 있어서 공유되는 영역이다.³⁹⁾ 영국에서 행해진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에게 일기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자기의 가치 추론적 정신화, Mentalizing of Self: SM) “여왕에게 일기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타자의 가치추론적 정신화, Mentalizing of Others: OM) “고양이가 지나갈 때 당신은 재채기를 합니까?”(자기의 신체추론적 정신화, Physicalizing of Self: SP) “고양이가 지나갈 때 여왕은 어떻게 재채기를 할까요?”(타자의 신체추론적 정신화, Physicalizing of Others: OP).

이렇게 4가지 질문을 구별한 이유는 추론을 하는 고차원의 정신 구성의 영역과 신체를 생각할 때 작동되는 신체 구성의 영역을 모두 함께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즉 가치론적 질문은 고차원 추론을 기본으로 하는 정신화 과정을 거치며, 신체 관련 질문은 신체 지각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화 과정을 거치듯, 양자는 서로 다르게 작동된다.⁴⁰⁾ OM은 타인에 대

한 고차원 추론이고 OP는 타인의 신체 지각이며, SM은 자기의 고차원 추론이다. 그리고 SP는 자기의 신체지각에 관한 영역들이다. <그림2>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 고차원 정신 구성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 지각을 구성하는 영역에서도 자기에 대한 생각과 타자에 대한 생각이 공유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신체 지각보다는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할 때 더 많은 뇌영역이 움직이는데 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자의 신체 지각에 대한 생각보다는 타자의 생각을 생각할 때 더 많은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신체 지각은 현재화에 맞춰져 있고, 태아 때부터 지각하던 기능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자동실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차원 추론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라 뇌가 애를 많이 쓰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 2>의 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 관해 생각할 때 보다 타인에 관해 생각할 때(가치추론을 하거나 신체적 지각을 할 때 모두)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시에 작동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와 타인을 혼동하는 것은 아니다.⁴¹⁾ 이 실험의 더 큰 의미는 다른 데 있다. 일반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데도 타자의 영역이 같이 작동하고 있고, 타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데도 자기의 영역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의 경우라면, 후설의 주장처럼 자기 구성으로부터 타자 구성이 일어나고 타자 구성을 토대로 객관적 세계 구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성인의 경우 자기와 타자에 대한 구성은 언제나 함께 동시에 아주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뇌가 작용한다.

38) <그림1>은 다음 논문 참조: G. Tian & B. Gurd, “Organizational Issues for the Lean Success in China: Exploring a Change Strategy for Lean Succes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19, No. 1, 2019, 6쪽. 원본은 색깔이 구분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빨강보다 파랑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난다.

39) M. V. Lombardo et al., “Shared neural circuits for mentalizing about the self and other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Vol. 22, No. 7, 2010, 1623-1635쪽.

40) 고차원 추론의 기본 정신화 영역: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posterior cingulate/precuneus, and temporo-parietal junction (TPJ);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MPFC), posterior cingulate cortex/precuneus (PCC), and TPJ. 저차원의 신체 관련 정신화 영역: the frontal operculum/ventral premotor cortex, the anterior insula, the primary sensorimotor cortex, and the presupplementary motor

area; frontal operculum/ventral premotor cortex (FO/PMv), somatosensory cortices (SI/SII), anterior insula (AI), and caudal ACC (cACC) extending into the presupplementary motor area :M. V. Lombardo et al.(2010), 1623쪽.

41) <그림2>에서 자기 지칭 영역은 vMPFC이고, 타자 지칭 영역은 PCC, RTPJ임.

의식이라는 복합계에서 어느 부분을 생각하는 하나의 단일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상태에 대해 상대 상태는 늘 함께 정의될 뿐이다.⁴²⁾ 자기성과 타자성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각, 구성, 인식, 인지된다. 특히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신체 관련 지각 영역과 고차원 추론 영역의 정신화 과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스스로가 의식하는 의식하지 않은 우리가 타인에 관한 생각을 할 때 타인의 생각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적 표현도 함께 인식하기 때문이다.⁴³⁾ 자폐증 연구의 권위자인 바론코헨 박사가 이 연구에 함께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지각 정보가 있어야만 한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아빠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마/아빠 화났어?”라고 묻는 경우라 하겠다. 자기가 타인의 생각을 시뮬레이션할 때 타인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 타자 경험은 타인의 신체 표현과 상징을 지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타인의 신체에 나타난 감정이 타인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 근거가 되는 것이다.⁴⁴⁾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타인의 신체 표현과 상징을 잘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의 신체 표현도 단조롭거나 단일해서 사회적 맥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기와 타자 구성이 공간을 통해 동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자기와 타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확보되는 개념인 이 정신능력을 ‘공유된 주의집중(joint attention skill)’이라 부른다.⁴⁵⁾ 공유된

주의집중은 “여기 좀 봐봐”라고 말했을 때 정확히 타자가 원하는 그곳을 자기 스스로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혹은 제3자가 원하는 곳을 여러 명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보통 자폐 증상이 있거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짐작 가능하듯, 이를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⁴⁶⁾

위에서 언급한 4가지의 실험과 ‘공유된 주의집중’ 행동의 발달과정을 종합해볼 때 자아성과 타자성은 서로 구별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성과 타자성은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동시에, 지각되어 상호대칭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4. 결론: 자아와 타자는 상호적으로 구성된다

‘자기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 이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관점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⁴⁷⁾ 새롭게 보완된 주장 중에는 사회적 관계나 타자의 반응이 오히려 개인의 ‘자기’ 개념을 창출한다는 주장도 있다.⁴⁸⁾ 이 입장에 따르면, 자기는 타자에 의해 구성되며, 자아

2009, 958-962쪽 참조.

46) P. Mundy et al., “A longitudinal study of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 20, 1990, 115-128쪽; 장은주,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대상 연극 놀이의 치료가능 연구」, 『연극포럼』, 2013, 114쪽.

47) R. F. Baumeister,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998, 680쪽; E. F. Williams & T. Gilovich, “Conceptions of the Self and Others Across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4 No. 8, 2008, 1037-1046쪽; N. N. Cheek & J. M. Cheek, “Aspects of identity: From the inner-outer metaphor to a tetra partite model of the self”, *Self & Identity*, Vol. 17, 2018, 467-482쪽.

48) J. H. Wirth et al., “Investigating how ostracizing others affects one’s self-concept”, *Self & Identity*, Vol. 17, 2018, 394-406쪽 참조.

42) 김재영, 「여러 세계/마음 해석과 ‘서울 해석」, 『물리학과 첨단기술』, 2012, 25쪽.

43) 다음 논문 참조: L. Q. Uddin et al., “Neural Basis of Self and Other Representation in Autism: An fMRI Study of Self-Face Recognition (Self-Recognition in Autism)”, *PLoS ONE*, Vol. 3, No. 10, 2008, 7쪽.

44) A. Goldman & F. de Vignemont, “Is social cognition embodied?”,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13, No. 4, 2009, 154-159쪽 참조.

45) J. T. Klein et al., “Social attention and the brain”, *Current Biology*, Vol. 19,

정체감이라는 단일한 혹은 단순한 자기 개념은 자기 구성, 타자 구성과 세계 구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⁴⁹⁾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신경생리학을 비롯해 심리철학, 인지과학 등에서도 최근 자기성과 타자성을 구성하는 의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 포스트현상학에서 “현상학적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을 수행하는 능력은 의식(인지, 마음)을 전제로 한다. 의식은 과학을 수행하는 선행적 조건인 시네콰논(Sine qua non)이다. 그러므로 의식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는 연구하는 바로 그것이 그 연구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의식을 대상으로서 연구하기 위해 의식을 가져야 한다.”⁵⁰⁾

의식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자기 구성과 타자 구성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의 차이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신경생리학이나 심리철학, 인지과학 등에서 밝히고 있는 의식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전통적인 현상학자들은 “이와 같은 실험들에 과연 현상학적 방법이 적용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⁵¹⁾ 과학적 실험이나 의학적 근거가 철학적 논의를 능가한

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듯,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분기되어 나왔고 의학이나 생리학 역시 철학의 분과학문이었다.⁵²⁾ 칸트는 일찍이 “철학의 의무는 오해에서 생긴 환영을 제거하는 일”⁵³⁾이라 했다. 인간의 사고에 관한 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가 확보되고 난 후 자기에 비추어 남을 인식한다는 시간의 인과를 기본으로 한 관점이다. 하지만 정형화에 반(反)하는 인간 의식의 특성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역동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기성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타자에 대한 지각 역시 이러한 자기 구성과 궤를 같이해 상호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본고를 통해, i) 타인의 나에 대한 지각은 새로운 자아를 발생시키고, ii) 타자를 직접 지각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지각 구조가 실제로 변화하며, iii)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타자의 현존성에 의해 자기성이 역으로 인식되며, iv) 자기와 타자에 관한 신체적 지각과 사유에 있어 공통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신경생리학적 실험들을 통해 밝혀진 공통 영역의 존재는 현상학적 의미의 자기성과 타자성은 ‘상호적(동시적) 구성’이라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대해 웅대할 책임이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이 속한 객관적 자연이나 객관적 세계 일반인 타자에 관한 새롭고도 무한한 영역을 구성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후설 현상학의 본래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새롭고도 무한한 영역이 끊임없이 구성되어야 하는 자기성과 타자성은 정형화되어 고착되는 순간 의식의 원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자기성과 타자성은 지각의 차원에서부터 상호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하나가 구성된 후 다른 하나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성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49) 특히 백인 중심의 다인종국가에서 백인 위주의 사회문화적 관점에 의해 달라지는 유색인종들의 자기 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종차별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겪어보지 못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자기’ 개념을 스스로가 구성하는 “것 같은 느낌”은 실제의 자기 개념이 구성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인식 부재의 결과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 논문 참조: S. E. Gaither, “The multiplicity of belonging: Pushing identity research beyond binary thinking”, *Self & Identity*, Vol. 17, 2018, 443-454쪽.

50) S. Gallagher & D. Zahavi, *The Phenomenological Mind*, 2nd ed., Routledge, 2008, 31쪽.

51) D. Zahavi, “The end of what? Phenomenology vs. speculative re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4, No. 3, 2016, 289-309쪽

참조.

52) M. Frede, “Philosophy and medicine in antiquity”, *Ancient Philosophy*, Oxford: Clarendon Press, 1987, 225-242쪽.

53)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7, 169쪽.

참고문헌

골드스타인, E. B. 외, 『감각과 지각』, 김정오 외 옮김, 제7판, 시그마프레스, 2007.

데이비드 이글먼, 『더 브레인』, 전대호 옮김, 해나무, 2019.

리차드 커니, 『현대 유럽철학의 흐름』, 임현규 외 역, 한울, 2017.

박문호, 『뇌 생각의 출현』, 휴머니스트, 2008.

에드문트 후설, 오이겐 핑크, 『데카르트적 성찰』, 이종훈 옮김, 한길사, 2016.

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의 문제』, 『철학사상』 제16호, 2003.

_____, 『자기의식의 현상학』, 『철학논집』 제41집, 2015.

이종주, 『후설의 타자이론의 근본화로서 메틀로-퐁티의 타자이론』, 『인문논총』 제65집, 2011.

_____, 『후설현상학에서 유아론의 다의성에 따른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의 다의성과 남는 문제들』, 『철학』 제107집, 2011.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7.

조셉 J. 코겔만스, 『후설의 현상학』, 임현규 옮김, 청계, 2000.

Chang, J. E. & Choi, Y., “Perception of the contemporary child and theatre for the very young”, *Medien und Theater*, Neue Folge, Band 13, Georg Olms Verlag, 2015.

Crocker, J. et al., “Social stigma: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1991.

Edelman, G. M. & Tononi, G., *A Universe of Consciousness*, New York: Basic Books, 2000.

Frede, M., “Philosophy and medicine in antiquity”, *Ancient Philosophy*, Oxford: Clarendon Press, 1987.

Freud, S.,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translated by James Strachey,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

Gadamer, H. “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subject and person”,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Vol. 33, 2000.

Gallagher, S. & Zahavi, D., *The Phenomenological Mind*, 2nd ed. Routledge, 2008.

Goldman, A. & de Vignemont, F., “Is social cognition embodied?”,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13, No. 4, 2009.

Huemer, M. “Phenomenal conservatism and self-defeat: a reply to DePoe”, *Philosophical Studies*, Vol. 156, No. 1, 2011.

Kandel, E. R. et al., *Principles of Neural Science*.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2013.

Kidd, C. “Phenomenal consciousness with infallible self-representation”, *Philosophical Studies*, Vol. 152 No. 3, 2011.

Klein, J. T. et al., “Social attention and the brain”, *Current Biology*, Vol. 19, 2009.

Lombardo, M. V. et al., “Shared neural circuits for mentalizing about the self and other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Vol. 22, No. 7, 2010.

Mears, C. E. & Harlow, H. F., “Play: Early and Eterna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72, No. 5, 1975.

Merleau-Ponty, M.,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andes, D. A. translated, Routledge, 2012.

Peacocke, C., *Truly Underst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Rehnberg, L. K. et al.,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environmental

enrichment on the space use, behaviour and stress of owned housecats facing a novel environment”,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Vol. 169, 2015.

Rochat, P. “The self as phenotyp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20, 2011.

Skirke, C., “Existential phenomenology and the conceptual problem of other minds”,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52, Iss. 2, 2014.

Tian, G. & Bruce Gurd, B., “Organizational Issues for the Lean Success in China: Exploring a Change Strategy for Lean Succes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19, No. 1, 2019.

Tomasello, M. “Joint attention as social cognition”, In C. Moore & P. Dunham (ed.), *Joint attention: Its origins and role in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1995.

Uddin, L. Q., et al., “Neural Basis of Self and Other Representation in Autism: An fMRI Study of Self-Face Recognition (Self-Recognition in Autism)”, *PLoS ONE*, Vol. 3, No. 10, 2008.

Zahavi, D., “The end of what? Phenomenology vs. speculative re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4, No. 3, 2016.

Zimmermann, M., “Neurophysiology of Sensory Systems”, In R. F. Schmidt (ed.) *Fundamentals of Sensory Physiology*, translated by M. A. Biederman-Thorson, Berlin: Springer-Verlag, 1978.

A Critic of Selfhood and Otherness in Husserl's Cartesian Meditations

Chang, Eun Ju · Park, Tchi-Wa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E. Husserl, in *Cartesian Meditations: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asserted that Self-construction grounded Others- Construction which would build the Objective world. However this article claims the simultaneity of construction of selfhood and ‘others-hood’. By preventing the standardization of perceiving processes Consciousness renews selfhood continuously. And perceiving others is a prerequisite for the selfhood. Neurophysiological and neuropsychological experiments show that: 1) a new ego can be generated by perceiving others’ eyes on the self; 2) perceiving others itself changes the structure of the self’s own perceiving system; 3) perceiving unpredictable others stimulates re-recognition of the self; 4) same neural areas are shared for physicalizing and mentalizing of the self and others. In conclusion selfhood and ‘others-hood’ are constructed indispensably.

Key words: E. Husserl, Ego, the Self, Others, Perception, Construction, fMRI

장은주 : i@jackiechang.org
박치환 : chwpark001@hanmail.net

투 고 일	2020년 7월 15일
심 사 일	2020년 7월 27일
게재확정	2020년 8월 13일